

[목회자 말씀]
하나님 말씀의 해석자 예수

2018. 5. 25. 이현래 목사님

성경한 유명한 말씀이 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 무엇인지는 다 아실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실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요1:14,16).”**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 말씀이다.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다.

구약에 계시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은 해석할 수 없는 사건들로 꼭 차 있다. 예를 들어 제일 쉬운 것이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구리 뱀을 쳐다보니 다 살아나더라는 것은 해석할 수가 없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됐다고만 하면 해석이 안 된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면 믿어야 되지만 우리에게 효과가 없다.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 몸에 영양소가 필요해서 먹는 것이다. 먹기는 먹었는데 아무 영양소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난번에 예를 든 것처럼 생콩을 먹어서 다시 생콩으로 나오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먹기는 먹었는데 내 몸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다.

어쩌면 유대교나 기독교가 지금까지 그래왔는지도 모른다.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다. 퍼지기는 많이 퍼졌는데 소화가 안 되는 양식이 퍼졌다. 우리 동네에도 건너편 동네에 보면 야산에 뾰나무가 많다. 아마도 내 생각에는 우리 교회 뾰나무 이거나 아니면 그 앞에 대구텍이라는 회사 뾰나무 중에서 씨가 옮겨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새들이 그것을 먹고 산 가운데 가서 배설을 해놓으니까 산에 가면 뾰나무들이 났다. 뾰나무가 도로 뾰나무로 나기는 났는데 소화는 하나도 안 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기는 한 없이 전달이 되고, 신구약을 막론하고 모든 말씀이 다 전파되었다. 그러나 그 실재가 전파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양식이 되지 않았다. 먹고 싸고 먹고 싸기만 했다.

어떤 경우는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가지고 금지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

세에는 해석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다. 특정한 사람만 해석을 하도록 했다. 카톨릭 사람들은 교황청에서 해석해 준 것만 받아들였다.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어떻게 할 것인가?’만 받아들였다. 그것이 교황의 칙령이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칙령처럼 받아서 지켰지만 소화 안 되는 콩이나 마찬가지로이다. 그것은 약이 된 것보다 독이 된 것이 더 많다. 소위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다.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아니었을 텐데 그 명령 때문에 수없는 사람이 죽었다. 약이 안 되면 독이 되는 법이다.

음식도 먹어서 소화가 되면 영양분이 되지만 소화가 안 되고 장으로 나오면 독이 된다. 요즘 대장암이 많은데 먹은 것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거나 특별히 육고기가 소화가 안 되면 독이 된다. 좋은 것일수록 독이 된다.

식물이 썩은 것과 동물이 썩은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르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개나 고양이가 죽어서 썩어보라. 엄청나게 독한 냄새가 난다. 사람이 썩어도 그렇다. 동물이 썩으면 독이 심하다. 바닷가에 가서 생선이 썩으면 그렇게 심하지 않다. 육고기가 썩을수록 영양가가 높을수록 독이 심하게 나온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소화가 안 되면 독이 된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다 큰 독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을 내가 해석해서 먹고 영양분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살리지 내가 해석해서 소화가 안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독이 되어버린다.

많은 사람을 처형할 때 전부다 하나님 이름으로 처형했다. 예수님도 그 희생양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이다.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마치 자기 친아버지처럼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소화해 버리면 망령된 말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는 것이다. 저것은 참람하다. 저것을 죽이지 않고 놔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아직도 그것에 대한 회개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회개가 없다.

유대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회개가 없다. 물론 개신교도 그랬다. 또 그것이 하도 심하니까 오죽 심하면 정교분리의 원칙이 생기게 되었겠는가.

미국을 건국할 때 그 헌법은 정교분리를 선언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종교를 해도 사회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어떤 종교라도 다 인정을 해야 한다. 정교분리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사탄종교라는 것도 있다. 그래도 누가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종교의 피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정치와 결탁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 아마 우리 한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만일 기독교인이 정권을 잡아서 정교일치를 하는 경우에 과연 정통에 대해서 이단들은 살아남겠는가? 당장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다.

종교가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소화가 안 돼서 그렇다. 독이 되었다. 그런데 소화가 되면 또 약이 된다. 아주 좋은 약이 된다.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보고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 소화가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자기라고 표현을 했다. 자기가 장대에 달린다. 모든 사람을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뱀의 독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었는가?

온 인류에게 퍼진 독은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준 선악과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3:5).”**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는 이것이 독이다.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그 독이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그 독이 들어와 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독 때문에 생긴다.

술 먹고 나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술 먹으면 울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술을 먹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도 있다. 술 먹고 나면 사람에 따라서 별 짓이 다 나온다.

마약도 그런 모양이다. 마약을 하고 나면 사람에 따라서 별 짓이 다 나오는 모양이다. 내가 한번 현장에서 목격을 했는데, 왜 저렇게 하면서 마약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멀쩡한 사람이 마약에 취하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자기 뒤에 누가 쫓아온다고 한다. 자기가 스스로 파출소에 가서 자기 뒤에 누가 쫓아온다고 신고를 한다. 제정신이 아니다. 왜 저것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아편하는 사람은 좀 이해가 된다. 너무너무 편하게 한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하는 히로뽕이나 이런 것들은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미친놈이 되게 만드는데 한다. 어떤 독이 사람 몸에 들어오면 사람을 제정신으로 못 살게 만들어 버린다.

아담이 왜 그 좋은 동산을 못 지키고 나왔는가? 결국 독이 들어있어서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창3:22).”고 한다. 영생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뜻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이 큰일이 난다. 그래서 내쫓은 것이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창3:22).”고 한다. 영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쫓아내었다. 그리고 화염검으로 두르고 그룹들로 지키게 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영생이다.

이 독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이 독을 가진 상태에서 영생은 누릴 수 없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시133:1,3).” 시편 133편이다.

이 독이 있으면 연합이 불가능하다. 다 하나님 같이 되었으면 연합이 되겠는가? 그러니 영생이 불가능하고, 연합하는 것은 이 독이 없어야 연합이 된다. 교회는 이 독이 없어야 교회가 되지 이 독을 가지고 모여서는 교회가 될 수 없다. 이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것이다.

예수님의 일생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쪽 살펴보면 어느 부분에서 이 독을 제거할 수 있었는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부분에서가 절대로 아니다. 많은 이적들을 행해서 사람들이 따라 갔다. 그런 부분에서 사람 속에 들어있는 독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 독은 어디서 없어지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자리에서 독이 없어진다. 거기서 비로소 참 사람이 드러났다. 그 참 사람이 독을 제거하는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3,14).”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영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믿는다고 해서 영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이적이 있었다.

그것을 믿으면 영생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연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연합을 하려면 우리에게 독이 없어야 된다. 독이 있으면 연합할 수 없다.**

산 사람도 죽은 사람과 묶어놓으면 같이 썩어 죽는다고 한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지지 말게 되어있다. 죽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죽음이 온다고 한다. 그래서 같이 죽는다. 둘을 묶어 놓으면 둘 다 같이 썩는다.

독이 있으면 연합이 불가능하다. 이 독이 빠져야 연합이 가능하다.

교회를 시작할 때 보니까 제일 먼저 걸리는 문제가 선악을 아는 지식이었다. 이것이 바로 화염검으로 지킨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화염검으로 동산을 왜 지켰던가? 이 선악과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활동을 하는 전통적인 교회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왜 있는가? 연합하기 위해서 있다. 연합하기 위해서 있는데, 연합을 하려니까 뭐가 걸리는가? 바로 그 선악과라는 것이 걸린다.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니까 연합이 되겠는가? 안 된다.

교회의 임무는 결국 이 선악과를 제거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첫째 관문이 바로 이것이구나.

천로역정에서 구도자가 천상을 향해 가는 길에는 이런 것이 별로 없다. 물론 판단이라는 것은 있기는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해 보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본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인데,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잘못은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남이 잘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데, 남이 잘못된 것만 보인다.

생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왔다. 생명교회라는 말이 그때 나온 말이다. 너희 교회는 뭐냐? 생명이다. 생명은 자란다. 그때 그래서 교회 이름을 생명교회라고 해야 된다는 말도 나왔다. 선악과에 대한 반동으로 생명나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여러분도 해보라. 교회가 아무 목적이 없이 오직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려고 해보라. 가장 걸리는 문제가 선악과이다.

그것을 어찌하든지 폐지하려고 하다보니까 기독교 윤리라고 할까 세상 윤리를 볼 때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보고 젊은 사람들을

저렇게 두면 안 될 텐데, 저렇게 두어도 되나 하는 비판 겸 염려를 하고 갔다. 아마 다 그랬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좋아했는가? 자기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좋아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다. 문벌 좋은 사람도 많지 않고 뭐한 사람도 많지 않고 은혜가 더하기 위하여 죄가 필요하겠는가 하는 이런 말이 왜 나왔겠는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롬5:20).”**라는 말이 왜 나왔겠는가? 그 교회 구성원들이 젠틀한 사람들만 모였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는가?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서민들 속으로 들어갔다. 사대부나 양반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서민들 속으로 가슴앓이를 하는 여자들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여자가 제일 많았다.

일본은 상류층에서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일본 기독교인들은 아주 젠틀한 사람들이다. 20명만 모여도 더 이상 모일 필요가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헌금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다 십일조를 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사역자가 못 사는 일은 없다고 한다. 대형교회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100명이 되어도 목회자 한 명이 살기가 어렵다. 우리가 다 가난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교양이 부족해서이다. 당연히 교회의 구성원이 되면 회비를 낸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생각마저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밑바탕이다. 샤머니즘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바탕이 되었다.

숫자로는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일본 기독교인들은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것도 아이러니하다. 그런 신사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얼마나 사회에 도움이 되겠는가? 일본에서는 지금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존경한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한다. 관공서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해보니까 너무너무 무시해서 놀랐다. 천주교 신부들은 잘 오지는 않지만 수녀들이 오면 칙사 대접을 한다. 아주 잘해준다. 그러나 개신교 사람들, 특별히 목사들은 아주 등한시 한다. 그것을 보고 한국 기독교는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알게 되었다.

우물 안에만 있다가 밖에 나가보니까 그렇더라. 그렇다고 교회들마다 사회봉사나 사회참여를 부르짖는 데가 많다. 그런데 바탕이 안 되는데 되겠는가? 오히려 들어가면 더 욕만 더 얻어먹는다.

연합이 똑똑해도 불가능하고, 또 너무 모여도 불가능한데, 한국교회는 그럭저럭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모이면 잘 된다.

하나님의 세계는 모든 것이 다 연합으로 완성되도록 되어있다. 홀로 완성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자세히 보라. 생명은 홀로 완성되는 것이 없다.

그러나 세상은 아주 반대이다. 홀로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이다. 둘이 같이 공동노력이 불가능하다. 홀로, 홀로다. 홀로 유명해져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 한국에서는 독야청청이라는 이런 사상이 뿌리 박혀 있다. 이것이 성리학 중에서 퇴계학 쪽에서 아주 심하다. 절대적인 진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심하다. 독야청청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조금만 어떻게 하면 야합한다고 하니까 독야청청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세계는 모든 것이 다 연합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 거기서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한다.

창세기 2장의 결론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2:24).”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떤가?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계21:2).”, 신랑과 신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 전부 다 연합이다. 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해서든 홀로 하려고 노력하니까 그 바벨탑이 무너질 것 아니겠는가? 결국 서로 높이 올라갈수록 말을 알아 듣지 못한다. 초등학교 때 친구가 제일 만만하고 올라갈수록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다 경계를 하기 때문이다. 참된 친구가 없다. 깨복쟁이 친구가 그래도 허물없이 아무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친구이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은 세상은 홀로 완성하려고 하는 곳이고, 교회는 연합으로 완성하려고 하는 곳이어야 한다. 이것이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교회마저 홀로 완성하려고 하면 연합이 점점 어려워진다.

기독교 역사에서 빛을 남긴 사람들을 자세히 보라. 대단히 훌륭하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는 연합이 불가능하다. 홀로 경건하고 홀로 똑똑하고 홀로 충성하지 연합은 잘 안 된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연합보다는 홀로 그것을 찾고 있다. 이것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교회가 되겠는가? 안 된다.

교회는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이 교회이다. 바울이 한 큰 비밀을 말 하겠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한다.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이 갑자기 돌아서서 에베소서 5장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엡5:32).”**고 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 자신이 그렇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모양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형상과 모양으로서 사람을 지었다. 벌써 하나님 자신이 홀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말을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또 잘못 들으면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하지 않겠는가? 홀로 완전하시다는 말은 다른 신들에 비해서 완전하다는 말이다. 홀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없이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불완전한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하고, 사람은 사람으로서 완전하다. 그런데 이 둘이 합해야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이다.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형상과 모양이 필요하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다. 하나님도 번성하시려면, 자기를 온 만유에게 알리려면 사람이 있어야 된다. 배필이 있어야 된다.

아담이 배필이 없으므로 외로운 것을 어떻게 아시겠는가?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아시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는가? 총각이 총각 사정을 알고, 홀애비가 홀애비 사정을 알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사정을 알겠는가?

“사람이 혼자 사는(독처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2:18).” 하나님이 홀로 있어 보니까 좋지 않은 것이다. 배필이 없으니 좋지 않은 것이다. 못 사는 것은 아닌데 좋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아담에게 생물들을 이끌어 오니까 이름을 지으라고 했다. 배필을 찾으라는 뜻이다. 다 보니까 배필이 없다.

이름을 지으라고 했다가 끝에 가보면 갑자기 돌아서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창2:21).”**라고 했는데, 앞에 말과 말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사람이 혼자 사는(독처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을 지으리라(창2:18).”

처음부터 갈빗대를 빼서라는 말을 하지 않고, 모든 생물들을 다 이끌어 와서 이름을 지으라고 해보고 난 다음에 아담이 이름 한 바가 이름이 되었더라고 한다. 그러면 다 된 것 같은데 거기서 갑자기 돌아서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창2:21).”** 하와를 만들었다고 한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보라고 할 때 공심이 다른 데 있었다. 하나님 생각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이다. 배필이 있는지 찾아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모든 문제는 전부 배필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구약과 신약이 그렇다. 구약만 있으면 해석이 안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석이 된다.

예수님은 바로 독이 없는 뱀으로서 아담에게 깊이 들어와 있는 그 독을 제거하는 뱀이다.

어디서 보니까 코브라 같은 독사에게 물린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는가? 그 뱀의 독을 사용한다. 독을 일부러 채취한다. 일부러 그것을 가지고 치료약을 만든다. 아담이 먹은 독을 빼기 위해서 오실 자의 아담을 택한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참 사람, 진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날 때 아담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가짜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

세상에 나가서 아담에게 당신은 가짜라고 하면 누가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이 있겠는가? 똑똑한 사람은 유독이 더 그렇지 않다. 유명한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은 유독이 더 그렇지 않다. 내가 왜 아담이냐고 할 것이다.

죄인이라고 말하면 모르겠지만 아무렇게나 산 사람은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고고하게 산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뺨 맞고 돌아온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네가 나를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고 할 것이다.

누구에게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옛날에 왕**이라고 지방교회를 맨 먼저 포교하려 온 사람이다. 그 사람을 만나보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간증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죄 있는 사람은 회개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인데 죄 있는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이지 죄 없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양심이 찢리더라는 것이다. 군대 출신으로 국민군 출신이었을 것이다. 원래

고향은 안동사람이고 안동 권씨인데 왕**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했다.

무엇인가 찢리는 것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찢르다 보면 내가 죄를 졌다고 생각 하지만 무결점 인생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씨가 먹히겠는가?

우리 교회에 유명한 자매가 있었다. 어떤 전도자가 와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했다. 이 전도자가 성경책을 펴놓고 여기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이것을 펴놓고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나는 그런 죄를 생각도 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일주일 동안을 와서 말해도 나는 전혀 죄가 없다고 말했다. 일주일 동안을 심문을 했는데도 자기는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한 것이다.

들어보니까 그 자매의 아버지께서 무슨 종교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종교를 하는데, 어려서부터 선하라고 착하라고 하는 것만 가르쳐서 그 자매는 나쁜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전도자가 지쳐서 가버렸다. 일주일 동안 심문을 했는데도 나오지 않으니까 어떡하겠는가? 이러면 죄인이라고 해도 나는 그런 일을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하니까 어찌하겠는가? 할 말이 없다.

죄를 졌다고 해야 그때부터 죄를 지으면 이런 지옥 불에 들어간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느냐고 물을 때 소위 복음이라는 것을 전한다. 죄 사함의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전도하는 공식이다.

이 자매에게는 도저히 바늘로 찢러도 피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가버렸다. 우리 교회에 아들들이 다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 처음에 와서 첫 시간에 간증을 했다. '여기가 천국이네요.'라고 했다. 특이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 있다가 돌아가셨다. 최** 한의사 어머니시다. 그런 특이한 사람을 보았다. 죄가 없다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의 복음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

사람을 만나보면 별 사람이 다 있다. 사영리만 읽어주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울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있다. 어째서 우는지 모른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우는지를 모른다. 자기 설움에 우는지 모르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울면서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심문을 해보아도 죄가 없다는 사람도 있다. 말이 좀 빗나갔다.

하나님의 경륜은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회도 연합이 목적이어야 된다. 목적이라기보다도 방법이어야 된다. 연합하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필요하다. 독이 빠져 나가야 된다.

예수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면 해석되지 않는 말씀이 없다.

구약에는 해석할 수 없는 말이 너무 많다.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서 한 명도 살리지 말아라.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그리고 그 성을 불살라서 영원히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겠는가?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독이 된다. 원수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백성의 길을 막은 사람들이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중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십자군 전쟁 같은 전쟁이 벌어진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들어간다. 그것을 어떻게 지금 세상에서 해석하겠는가? 그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있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근차근 멸하라. 한꺼번에 멸하지 말고 차근차근 점령해 가면서 멸하라 고 되어있다. 그 싸움 때문에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그때 전쟁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기구한 운명이다. 성경 말씀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명분이 없다. 왜냐하면 2천년 동안이나 비워놓았던 땅에 객지에서 2천년을 돌아다녔던 사람이 와서 우리 땅이니 내놓으라고 하니 말이 되는가?

우리가 지금 고구려 땅을 회복한다고 만주에 가서 우리 땅이니 내놓으라고 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어디에 가서 먹히겠는가?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땅이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지 원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었다. 원래부터 블레셋 땅이다. 그런데 그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있다. 지금도 그것을 명분으로 세운다. 성경이 없으면 소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명분이 없다. 걸핏하면 총을 쏘고 무력으로 해버린다. 자살폭탄이 왜 생기겠는가? 저런 문제 때문에 생긴다. 저곳이 세계의 화약고이다.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지 않으면 독약이 되어 버린다.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지금 그것 때문에 수천년을 싸우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수천년을 싸우고 있다.

이런 정신이 개신교 안에도 없다고 할 수가 없다. 자세히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라. 세계 교회사를 생각해 보라. 이 정신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지금까지도 제대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으로 해석만 된다면 너무너무 좋은 양식이 될 텐데 온 백성을 살리는 약이 될 것이다.

만민을 살리는 복음이 안 되면 나는 복음이 아니라고 지금은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은 천당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하면 복음이라고 할 수 없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을 받는다고 하면 참된 복음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러야 그것이 복음이지 어떤 사람은 합격하고, 어떤 사람은 불합격 한다면 참된 복음이라 할 수 없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것도 결국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때 당시에 경고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그것이 교리가 되게 되면 결국 또 마찬가지로 옛날 일이 반복된다. 도로 독이 된다.

이 모든 것이 예수로 해석되지 않으면 전부 다 독이 되고 만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체가 되신 그분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다 독이 된다. 우리가 잘못 전파하면 독을 전파하는 것이 된다. 해석되지 않은 것을 전파하면 독이 된다.

음식을 먹으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었는데, 나는 늘 먹으면서 신기하게 생각한다. 음식 속에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었는데, 이것을 비빔밥을 하여 뱃속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그 생명 안에서 이것이 다 분류되어서 여러 가지 영양소가 분해되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데로 가는지가 너무너무 신기하다.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한다.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 분류하는지. 그런데 다 분류해서 갈 것은 가고 못 갈 것은 버린다. 생명 안에서 걸러낼 것은 걸러낸다. 이것을 걸러내지 못하면 병이 된다.

좋은 것일수록 더욱 그렇다. 소고기일수록 씹으면 냄새가 훨씬 독하다. 그리고 그 독을 맡게 되면 사람이 훨씬 심한 독에 빠지게 된다. 생선 씹은 것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

나는 바닷가에 살았는데 가을이 돌아오면 겨울에는 고기가 나지 않으니까 대부분 겨울을 위해서 제사 반찬 이런 것을 장대에 말린다. 이것이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썩는다. 구더기가 생긴다. 그런데 구더기 파내고 또 말려서 쓴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생선 씹은 것은 좀 먹어도 상관이 없다. 끓여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육고기는 썩은(상한) 것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아주 맹독이 들어있다. 좋은 것일수록 하나님 말씀일수록 부패하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면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독이 되고 만다.

콩이 제대로 발효가 되면 메주가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발효가 되지 않으면 시커멓게 썩는다. 시커멓게 썩은 메주는 먹으면 안 된다. 푸른곰팡이가 나야 되는데 검은 곰팡이가 나면 사람이 먹으면 독이 된다.

좋은 것일수록 썩으면 더 나쁜 독이 되고 만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썩으면 아주 무서운 독이 되고 만다.

사람의 말은 좀 썩어도 다음에 또 바뀌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바꾸지 못한다. 바꿀 수 없는 말씀이 썩어놓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독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보니까 예수가 아니면 예수도 여러 면이 있는데, 독을 제거하는 예수, 아담이 먹은 독을 제거하는 예수, 또 구약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해석하는 예수, 소화시키는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독을 내놓는 결과가 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장막이 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실재)가 충만하더라(요1:14).” 장막은 성막이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요1:16).” “충만한 데서”는 ‘완전한 데서’라는 뜻이다. 그의 완전한 데서 받으니 은혜위에 은혜라. 우리가 예수에게서 받으면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가 된다. 그런데 그가 없이 받은 것은 은혜 위에 은혜가 된 것이 아니라 병 주고 약 주는 결과가 온다. 기독교는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못된 일도 많이 했다. 병 주고 약 주는 결과이다. 맛있는 음식에 독을 섞어놓으면 진짜 큰일이다. 맛이 없으면 덜 먹는데 맛이 있으니까 큰일 난다.

하나님 말씀에 뭘 섞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표면적인 것을 섞지 않기는 쉽다. 그렇지만 썩은 것을 섞기는 쉽다.

불교에서는 유아독존, 홀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는 홀로 완전한 것이 아니다. 연합하여 한 실체를 이루는 연합체이기 때문에 연합이 필요하고, 연합을 하려면 독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연합이 불가능하고, 연합이 불가능하면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데서 만난다는 그것이 복이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많다. 갈릴리 가나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 데서 만난 사람도 있고, 병자를 고친 데서 만난 사람도 있고, 많다.

어떤 사람은 평생 병자 고치는 이야기만 한다. 그 사람은 병자 고친 데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맞지만 병자를 고치신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병자 고친 이야기로 들어간다.

자기가 만난 데로 한다. 자기가 예수를 만난 그대로 자기가 또 하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살아난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문제를 또다시 던지게 된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문제를 던져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는 또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서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거기서 실망하고 갔기 때문에 찾아가신 것이다.

예수의 최후를 보고 실망했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바닷가로 갔다.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우리는 또다시 오순절로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완전히 구원이 드러났는데, 그것을 못 보니까 그 다음 일이 생겨난 것이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갈3:1).”고 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있는데 왜 또 다른 것을 찾느냐는 말이다. 왜 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는 이 말이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에 있어야 된다. 디베라 바닷가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은 큰 은혜이지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짜내기 위해서 도망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순절에 불에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또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완전한 복음이 드러났는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살아낼 때가 되었다. 완전한 복음을 살아낼 때가 되었다. 완전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완전하게 살아내야 될 때가 왔다. 무엇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다. 부활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예수님이 혼자 부활했다고 해도 우리가 부활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다시 살아야 예수가 참으로 부활하신 분

이 된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그분이 살아나야 영원히 살아난 것이지 그때 한 번 살아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 버렸는데 땅에는 없다. 땅에는 부활하신 예수 가 없다.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가 안 되면 땅에 내려오지 못하신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창1:2).”고 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인데 내려와 보니까 다 물에 덮여 있더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은 앓을 자리가 없다. 너플거리게 되었다. 물위에서 배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땅위에 주님이 부활한 몸이 있어야 주님이 다시 오실 수가 있다. 그것이 없으면 다시 오실 수가 없고, 또 오실 필요도 없다. 와 봐야 소용이 없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계22:20).”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이유가 우리가 준비하면서 오라고 해야지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데 그냥 오시겠는가? 신부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신랑이 오겠는가? 신랑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신부가 오겠는가?

또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바벨론이 무너지겠는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었을 때 바벨론이 무너졌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최후의 심판이 와서 완전히 불벼락이 나서 세상이 망한 다음에 예수님이 온다고 생각했다.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어려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그것이 2천년대가 되면 된다고 한다.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2천년 되면 곧이다. 곧 오신다고 한다. 한국 교회에서도 2천년이 될 때까지 부흥사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말세 말세하고 돌아다녔다. 2천년이 넘어가니까 어디로 쏙 들어가고 없다. 뉴욕에 그 후로 가보니까 그 많던 부흥사 포스터가 싹없어져 버렸다. 이제 말세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한 번 속았으니까 먹여주는 사람이 없다.

완전한 복음이 전해져서 땅위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해야 부활된 몸이 나타나야 주님이 오신다.

우리가 주님을 빨리 오시게 할 수도 있고, 늦게 오시게 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 달렸다. 물이 건혀야 그 다음에 씨를 뿌릴 것이다. 씨를 뿌려야 식물이 나오고, 식물이 나와 동물이 와서 먹고 살 것이 있다. 식물도 없는데 동물이 와서 뭘 먹고 살겠는가.

오늘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계22:20).” 아멘!